‘최소개입교정’을 통한 새로운 부정교합 치료방법

위스마일치과교정과치과
백재호

부정교합은 치아 건강, 치주 조직 건전성, 악관절 및 심리적 문제들과 관련된 광범위한 포괄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 임에도 불구하고 근래 다양한 장치들의 개발을 포함한 치료 접근 경향은 심미적 관점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질병으로써의 부정교합에 대한 이해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부정교합 또한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원인을 조기에 진단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질병의 초기 단계에 자발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후천적으로 유도되는 부정교합의 경우 이와 같은 원인 요소 해소를 위한 치료 접근 방식은 매우 극적인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인위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부정교합이라는 결과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신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최소개입교정’은 기존의 교정과는 달리 치근 흡수, 탈회, 치조골 손상과 같은 다양한 의원성 부작용들을 피할 수 있으며, 또한 환자 스스로 재발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 안정적 결과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소개입교정’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1)원인요소분석, (2)환자 교육, (3)자발적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사용으로 이루어진다. 원인요소분석과 환자 교육을 위해서는 개별 환자에 대한 유전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대한 방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발표에서는 지난 20여년간 9,000여명의 환자들에 대한 심층 면담과 자료 분석을 통해 구축한 체계적인 분석과 교육 방법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자발적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들은 이미 발생한 부정교합이 자발적 회복을 할 수 없는 단계로 진행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여기에서는 ‘최소개입교정’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치들을 사례들과 함께 제시할 것이다. ‘최소개입교정’은 질병으로써의 부정교합을 조기에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한 후 이를 교육과 최소한의 장치로 해소하여 신체가 항상성 유지를 통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연령에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향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보다 광범위한 환자들이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병인 요소들을 보다 더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제공을 통해 부정교합은 물론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질병들을 자발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개입교정’ 접근의 최종 목표이다.